

실용美 추구한 옛 복식문화

「韓國服飾風俗史研究」를 통해 본 先人들의 슬기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로 衣食住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衣는, 인간 사이에 부끄러움과 경의를 나타내는 예절의식의 기본을 이루면서 한 민족의 美의식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소중히 여겨져 왔다.

전통복식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우리네 복식문화에는 갖추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예절들이 유난히 많고, 구석구석 꼼꼼한 정성이 깃들지 않은 부분이 없다. 과연 우리의 복식문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는가? 옛 여인네들은 어떻게 옷감을 짜서 바느질했고, 어떻게 그것을 입었을까? 쉽게 잡혀질 듯하면서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복식문화의 총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헌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민족의 질박한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 갖가지 풍속을 밝혀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趙孝順교수가 발표한 「韓國服飾風俗史研究」는 복식사를 풍속사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국내 첫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임진왜란 이후 개화기까지 약 300여년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이 책은, 옷을 짓고 관리하는 여러 풍속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활사이며, 정신문화의 기층을 이루는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에까지 전해진 우리의 길쌈솜씨

우선 우리의 전통적인 옷짓는 풍속을 살펴보자. 길쌈을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일찌기 발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李漢의 「星湖僊說」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신라 혁거세 8년에 왕이 六部를 순회하며 백성들에게 양잠을 권장했다고 하며, 유리왕 9년에는 嘉俳를 행해 길쌈을 장려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특히 모시가 발달하여 「고려사」 忠烈王條에는 “왕에게 바쳐진 흰 모시의 가늘기가 매미 날개 같고 꽃무늬가 섞여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이같은 뛰어난 솜씨는 멀리 宋나라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길쌈되었던 옷감 중 서민의 의생활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삼베와 무명인데, 미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역시 명주와 모시를 한 차원 높은 직물로 쳤다.

조선조 후기 복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옷감이라면 모피도 빼놓을 수 없다. 단순한 방한복 재료로 產地에서 이용되던 모피가, 점

우리 선조들은

아기의 배냇저고리에도

정성과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면

복식에 대한 사치풍조도 상당해져

남녀 모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며,

길쌈에서부터 세탁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기술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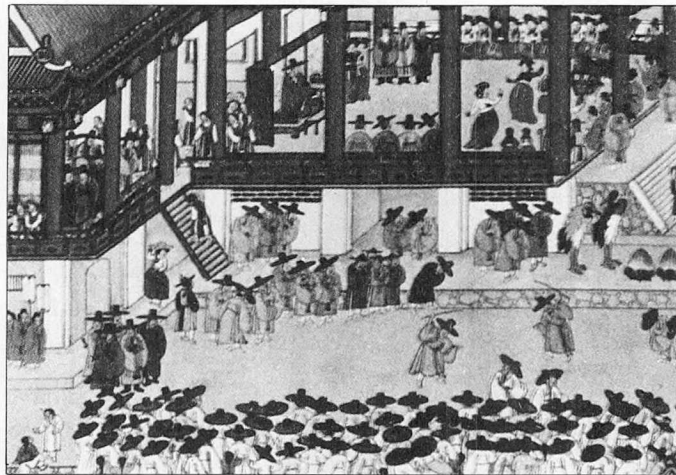
정교하게 발달되었다.

차 기후에 관계없이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치품으로 무절제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 의하면 담비, 산달, 수달, 해달, 청서(靑鼠) 등이 가장 인기있는 모피였던 듯. 모피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사용금지령을 내린 기록도 있다.

조선조 후기에는 염색법 역시 크게 발전하는데, 녹록·쪽·하염록·자초 등의 식물을 이용하여 자주빛·남색·옥색·초록·豆綠·보라·지치보라·회색 등 갖가지 화려한 색깔을 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호사설」 人事門에 “옷 한벌을 염색하려면 그 쪽을 심은 밭이 네 식구가 한달 먹을 곡식이 나는 땅을 버리는 것이 되니...”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민들의 경제사정으로는 염색값을 감당키 어려웠던 듯하다.

옷을 짓는 방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네의 것이 양복의 입체재단과 반대되는 평면재단이라는 점이다.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 치마의 길이를 되도록 길게 잡고 저고리 기장은 가능한한 짧게 재단한 것은 선조들의 미의식을 반영하며, 여분을 많이 두고 마름질하여 재생하기 쉽도록 한 것은 경제성과 실용성을 염두에 둔 지혜이다.

연령과 신분에 따라 옷입는 방법과 풍속이 각기 달랐는데, 여기에도 생활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때옷이라 불리는 어린이의 색동저고리는 남아 있는 비단 조각들을 이용한 일종의 폐품이용이었다. 그러나 음양오행설에 따라 액을 면하고 복을 받기



조선시대의 官員, 양반, 양반자제, 妓女들의 복식을 정묘하게 보여주는 그림(조선후기 「평양감사환영도」 중 부벽루 宴會圖)

위해 五色(빨강색·검은색·푸른색·흰색·노란색)을 이어붙인 데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아기의 배냇저고리에는 고름 대신 무명실을 꼬아 여미게 해, 장수를 기원하는 한편 안거나 업을 때 옷이 배기지 않게 했다.

조선조 유행의 창조자는 妓女

조선조 사회에서도 오늘 날과 같은 유행이 존재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조선조 중·후기 이후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남성의 복식이 양반복식을 모방하는 상향성형태로 바뀌어갔던데 비해, 여성의 경우 기녀의 복식을 닮아가려는 하향성형태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색깔과 형태에 있어 서민사회에서는 많은 금기를 두고 있었던 데 비해, 기녀들은 대체로 자유롭게 색과 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녀들은 이른바 유행의 창조자들이었는데, 차마 아래로 10여가지의 속옷을 입어 하체를 크게 강조하고 가능한한 짧은 저고리를 입어 성적 매력을 드러냈다.

기녀의 사치한 복식을 닮으려는 일반부녀들의 심리는 조선조 말엽으로 갈수록 부분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갈수록 심화되고 전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雅亭 이덕무는 「靑莊館全書」에서 부녀자들의 복식을 다음과 같이 개탄한다.

“지금 세상의 부녀들의 옷은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의복이 요사스럽다...새로 생긴 옷을 시험삼아 입어 보았다니 소매에 팔을 꿰기가 어려웠고, 한번 팔을 구부리면 술기가 터졌으며, 심한 경우에는 간신히 입고 나서 조금 있으면 팔에 혈기가 통하지 않아 살이 부풀어 붓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소매를 찢고 붓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요망한 옷일까! 대저 복장에 있어서 유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창기들의 아양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되어 그 요사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처첩에서 권하여 그것을 본받게 함으로써 서로 전하여 익히게 한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깨끗이 단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목욕과 화장의 풍속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의 목욕문화는,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성행했던 불교가 목욕제계를 율법으로 정하고 있던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중당이 발달하여 일본에 전파되기도 했다. 조선조에 들어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다소 퇴조하는 기미를 보이기도 하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더욱 사치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조선조 목욕풍습 중 가장 특징적인 면은 부분목욕의 발달로, 조선조 말의 생존자 이규숙씨의 증언에 따르면 한번 몸을 닦는데 대어섯 개의 대야가 동원되는 것은 예사였던 듯하다. 그런가하면 미용을 위한 전신탕으로 인삼탕·창포탕·유자탕·蘭湯 등이 행해졌다고 하니, 미용에 관심이 많은 현대여성들도 한번 실행해봄직한 목욕법이다. 목욕용구 중에서는 부분목욕의 영향을 받아 특히 대야가 발전하게 되는데, 유행대야를 만들어 집안에서 유행 전에 목욕한 효과를 얻었다고도 하니 실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손님접대 및 외출때 열은 화장은 필수적

화장의 풍속을 보면, 상류층의 여인네에게 있어 나들이와 손님접대시 은은하고 열은 화장은 필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조선조 남성들



뒷줄 오른쪽으로부터
씨앗기, 솜타기,
고치말기, 물레жат기,
꾸리감기, 베짜기를
하는 여인들(조선 후기
「기산풍속화」 중
女人紡績圖)



사모관대에 말타고
장가는 신랑
(조선 후기 「기산풍속
화」 중 婚行)

사이에서도 흰 피부를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냉수와 온수에 씻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액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여인이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부여조’의 기록처럼 우리민족은 희고 깨끗한 옷을 선호하여 빨래를 숭상하는 습관이 있었다.

백과사전적 가정학총서격인 馮虛閣 李씨의 「閨閣叢書」(1800년경)에 따르면, 각종 식물의 재를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풍속이 조선 시대 전국에 걸쳐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마다 그 식물의 종류가 달라, 콩까지 잣물의 사용은 경기지방의 풍속이고, 충청지방에서는 뽕나무재, 강원도 지방에서는 마른 잡초재가 이용되었으며, 그밖에 들깨나무재·메밀나무·콩나무재가 이용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얼룩빼기 방법도 실로 다양해, 약물이나 느티나무 꽃물은 오매(매실껍질을 벗겨 쥘붙연기에 그슬려 말린 것) 달인 물에 빨고, 먹물은 살구씨를 씹어 문지르거나 대추를 바르면 빠지고, 기름과 먹이 함께 문었을 때는

반하(천남성과의 다년생풀)가루·오징어뼈·활석가루·백박가루를 같은 분량으로 섞여 가루로 만들어 깨끗이 세탁한 후 마늘을 찧어 문지르거나 살구씨나 대추를 문지르면 얼룩이 빠진다고. 옷에 좀이 스는 것을 막으려면 뽕장어뼈 말린 것이나 말린 상추잎, 말린 평지(겨자과의 이년생 식용식물), 살구씨가 효과적이라는 기록도 있다.

오늘날까지 구전되어 오는 갖가지 재미있는 속담·복식금기어 및 길조어들을 통해서도 복식에 관한 우리 민족의 의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오지랖이 넓다’ ‘치마가 스물 네폭이다’라는 속담에는, 남의 일에 공연히 참견한다는 뜻 뿐 아니라 필요 이상의 넓은 옷을 낭비로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명주 옷은 육촌까지 따습다’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등의 속담들은 풍족하지 못했던 서민생활의 고달픔을 반영하고 있으며, ‘밤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집안 망한다’ ‘이웃에 초상 냈을 때 빨래나 바느질하면 불길하다’ 등은 방망이 소리로 이웃에 폐를 끼쳐서는 안되며, 인생의 중대사를 이웃과 함께 기뻐하

얼굴

“전통 기술의 傳授 아쉽다”

「服飾風俗史」 펴낸 趙孝順 교수

“궁중복식이나 상류층 복식에 관한 문헌 기록 및 유물들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서민들이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옷을 대했는가에 관해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묻혀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학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식문화의 뿌리를 찾으려는 작업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통복식연구에 몰두해 온 趙孝順 교수(47·명지대)가 최근 발표한 「한국복식풍속사연구」는, 옷차림과 생활과의 떼어 수 없는 상관관계를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모은다.

복식풍속사란 다소 생소한 분야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남모를 고생도 많이 했다고 趙 교수는 말한다.

“풍속사연구에는 문헌연구와 필드 워크, 즉 현장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복식관계의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수 많은 古書들을 섭렵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각종 유물·풍속화 등을 기록과 일일이 대조해 봐야 하고, 지금까지 서민들 속에 남아 있는 풍속을 채취하기 위해 많은 신발들을 닳아 없애야 하는 길고도 지루한 작업을 계속해야 하지요.”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과, 그나마 전래되어 오던 풍속과 기술들이 현대문명 속에서 안타깝게 쇠퇴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바느질기술이나 염색기법 등을 캐내기 위해 노인분들을 인터뷰하다보면 그 좋은 기술들이 전승되지 못한 채 맥이 끊기고 마는 것을 목격하게 돼 아쉽기 그지 없었다고 趙 교수는 말한다. 전통의복기술을 전수하는



기관이 정부차원에서라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옛날 여인네들의 지혜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의복을 다루는데 있어 무엇 하나 그대로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길쌈과정에 서부터 옷짓기, 세탁과정에 이르기까지 대량 생산과 화공약품이 난무 하는 오늘날의 복식문화와 비교해보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슬기 로움이 있었지요.”

趙 교수는 기록에 나타난 얼룩빼기방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험까지 해 보는 등, 옛 의복관리법의 과학적 근거를 찾는 일 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복식풍속사연구는 이제 출발단계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깊고 넓게 연구가 이루어야겠 지요. 이번에 발표한 책의 내용을 더욱 보강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만 의 독특한 貸衣풍속문제,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복식문화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 계획입니다.”

「한국복식풍속사연구」에 다 담지 못한 우리네의 수많은 풍속들을 캐내려는 계획에 趙 교수는 더욱 분주하지만 하다.

— 오애리 기자

고 슬퍼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강하게 담겨 있는 대표적인 속담들이다. 위와 같은 예의 풍속은 단순히 옛사람들의 의생활로 흘러버 리기에는 아까운 소중한 것들이므로, 나만을

앞세우는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한번쯤 되새 겨보길 바란다.

— 志社 / A5신 / 524면 / 15,000원